



국정감사

(기초기술연구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2007. 10. 22)

기초기술연구회

1. 과기계 출연(연) 26개 중 23개(88%)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켜...
2. 과기계 출연(연) 비정규직 33%, 이중 박사학위 소지자 15%가 비정규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 프레드 허치슨 공동연구센터의 허상...

한국한의학연구원

1. 사상체질학(이제마 프로젝트)연구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 연구동 재건축 조속히 추진해야...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1. 대덕특구지원본부 지휘력·운영능력 빼그덕...

과기계 출연(연) 26개 중 23개(88%)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켜

□ 문제점 & 질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해야 함.
 - 2007년 7월 현재, ‘장애인복지공단’ 발표자료에 따르면 5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를 달성한 기업은 23%이며 특히 30대 대기업 중에서는 4개(13%) 기업만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있음.

- 과기계 3개 연구회(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소속 26개 정부 출연연구원(부설연구소 포함)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및 부담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7년 9월 현재, 26개 기관의 직원은 총 12,846명으로 장애인의무고용에 따라 2%인 644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나 실제 채용인원은 400명에 불과하였음.
 - 26개 출연(연)(부설연구소 포함) 중 식품연구원, 천문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 3개 기관만이 장애인의무 고용을 지키고 있으며, 23개 기관(88%)은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음.
 - 이 같은 결과는 1990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과기계 출연(연)이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2006년도에는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6억 5,194만원을 납부하였음.

- 연구회별로 의무고용비율을 보면, 기초기술연구회는 공공기술연구회 69.8%, 산업기술연구회 64.3%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49.0%에 불과한데,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사장께서는 2007년도에 이 문제에 대해 이사회 회의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거나, 출연(연)에 장애인고용을 독려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바람?

- 2007년 9월 현재,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7개 출연기관 중 천문연구원을 제외한 6개 출연(연)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에 턱없이 부족하여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약 1억 2,000만원을 납부하고 있음.
 - 특히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26개 출연(연) 중 가장 낮은 30.9% 고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기서 더 나아가 50%는 비정규직임.
 - 한의학연구원장, 현행 2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으로 확대되어 한의학연구원도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귀 기관 역시 의무고용비율 대비 47%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장애인 의무고용은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만큼,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및 원장님들께서는 국가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함.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 이상을 맞추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람.

정부 출연(연) 비정규직 33%, 이중 박사학위 소지자 15%가 비정규직

□ 문제점 & 질의

- 과기계 3개 연구회 소속 26개 출연(연)(부설연구소 4개 기관 포함)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전체 직원 12,846명 중 4,811명(33.1%)이 비정규직 임.
 - 연구회별로 보면, 산업기술연구회 33.8%, 공공기술연구회 27.0%이나 기초기술연구회는 타 연구회보다 훨씬 높은 44.9%를 차지하고 있음.
- 기초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수리과학연구소 70.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2.6%, 기초과학지원연구원 60%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수리과학연구소는 설립된 지 몇 년이 되지 않아 인원이 아직 소수라 그렇다고 해도 생명공학연구원과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서는 소속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이 특히 높고, 비정규직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16.2%로써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13.5%에 비해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은 산업, 공공기술연구회와는 달리 기초분야연구기관인 만큼, 정부의 인건비 지원비율을 좀 더 높여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프레드 허치슨 공동연구센터의 허상...

■ 추진 경과

- '02년 10월
 - 미국 프레드허치슨 암연구소(FHCRC) 소장 Lee Hartwell
 - 박사가 과기부장관 방문, '암연구에 필요한 공동연구 제안'
- '04년 10월
 - '국제 공동 바이오마커 연구개발' 추진에 관하여 구두합의
- '05년 2월
 - FHCRC와 국제공동 심포지엄의 개최 및 국제공동연구센터 개소
- '05년 10월
 - 국제암바이오마커 컨소시엄(ICBC) 추진합의
- '06년 2월
 - ICBC 국가간(한국, KRIBB-미국, FHCRC- 스위스, IMSB)
 - 국제 화상회의 개최
- '06년 8월
 - 생명(연), 과기부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활용사업 수주
- '06년 9월
 - 생명(연)에서 동아시아 연구자(중국, 대만 홍콩 등)간 간암 바이오마 워 크샷 개최
- '06년 12월
 - 싱가포르에서 제2회 ICBC 회의 개최
- '07년 5월
 - 질량분석을 이용한 바이오마커 검증 방법(SISCAPA)'의 도입(※FHCRC 의 연계기관, 캐나다의 빅토리아 대학)
- '07년 7월
 - 생명(연)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활용사업 2년차 과제 수주
 - ※삼성병원, 가톨릭 대학병원, 기초(연), 생명(연)(나노기술팀)이 합류한 연구체계 구축

○ '07년 9월

- 연구팀의 FHCRC 및 빅토리아 대학 방문, 회의 및 발표를 통해 구체적 공동 연구 주제 발표

○ '07년 10월

- 생명연-FHCRC-UVic '바이오마커 개발 워크숍' 국내연구진 및 T. Pearson, C. Borchers 참석

■ 연도별 성과 현황

구 분	논 문			특 허		
	SCI	기타	계	출원	등록	계
2005	2	-	2	1		1
2006	6	-	6	2		2
2007 현재	2	-	2	-	2	2

■ 연도별 연구 인력 현황

구 분	연 도 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15	29	58	61	61	61
국 내	계	5	19	35	35	35
	박사	2	8	12	12	12
	석사	3	11	13	13	13
국 외	상대 기관*	10	20	23	25	25
	상주 연구자	-	-	-	1	1

주 : 상대기관의 연구자는 본 '암바이오마커 개발'과 관련하여 직접 관여하고, 이메일, 화상, 전화회의, 방문 등을 통해 교류하는 연구자의 수를 말함

■ 문제점 & 질의

- 우선 생명연구원이 주도적으로 '해외우수 R&D연구센터'를 유치하여 공동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함. 그리고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연구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대덕연구단지 내 '해외 우수연구기관의 공동연구소' 6개 중에서 3곳이 공동연구가 중단되었음.

- 카이스트-카벤디쉬 연구소는 연구원이 함께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현지 기관과 왕래하며 교류에 그쳤고, 한남대-프로메가 연구소는 협정은 맺었으나 공동연구는 없었고, ETRI-캠브리지는 과제가 종료되어 공동연구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해외우수연구기관의 인력과 공동연구를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선진과학기술시스템 및 기술교류협력이 증진되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의 목적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허치슨 암센터 공동연구소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함.
- 무엇보다 예산이 중요한데 ‘2005년 2월 18일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보면, 대전시에서 매년 50억원 규모, 생명(연)에서 매년 10억 규모의 재원을 조달하여 연 6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런데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05년에 약 19억(대전시 9억3천만원, 생명연 10억), ‘06년 약 11억(대전시 5억, 정부 5억, 생명연 1억), ‘07년 약 7억 9천만원(정부 5억2천만원, 대전시 1억7천만원, 생명연 1억),으로 나타남.
<참고자료 1 : 양해각서 사본, 참고자료 2 :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 연간 예산을 6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대전시의 지원금 부족으로 연간 20억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구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프레드 허치슨 암연구소도 예산 지원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또한, 프레드 허치슨 암센터에서 부담하는 연구개발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공동연구개발이라면 프레드 허치슨 암센터의 투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3년간 연구인력 현황을 보니, 아직까지 프레드 허치슨 암센터의 전문연구인력이 국내 공동연구소에서 한국 연구진과의 공동연구는 전무함.
- 2008년부터 ‘10년까지 1명의 연구진이 합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공동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대한 원장의 견해는?

사상체질의학(이제마 프로젝트) 관련

■ 현황 및 질의

- 세계적으로 현대의학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관점인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세계 전통의학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대체의학에 대한 국가별 투자도 강화되고 있음.
- 세계 보완대체의학시장은 2008년까지 2,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세계인구의 약 60% 정도가 대체 의학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됨.
 - 미국, 중국 등에 비해 인적/물적 자원이 제한된 우리나라는 선택/집중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한방의학의 선두주자인 중의학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야 함.
 - 따라서 한국 고유의 전통의학인 (사상)체질의학이 전략적 핵심 분야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원장의 견해는?
- 우리나라의 강점인 첨단 IT 기술과 BT 기술과의 융합과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을 통해 과학적인 분석으로, 전통의학의 약점인 과학화 부분을 보완을 한다면 체질의학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비전이 있다고 보는지?
- 원장, 현재까지는 사상체질 이론이 누적된 임상적 경험과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가장 유력한 가설이지만, 다양한 체질이론을 받아들여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상’이라는 단어를 빼고 ‘체질의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현재 한국에는 4상의학에서 파생된 5체질, 8상체질, 16, 32, 64 체질 등 여러 형태의 체질의학이 존재하고 있음.)

- 체질의학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원천기술보유 및 세계 의학시장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임. 이 사업이 처음 기획될 때에 연간 100억의 프론티어사업 규모로 준비됐으나 현재 연간 20억 정도에 그치고 있음. 현재 연구비 규모가 적절한가를 묻고 싶고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 총사업비 추정 : 10년간(2007~2016년), 1,100억원
- 1단계 사업비 : 175.1억원(2007~2009년)
- 현재 사업비 : 과기부 특정연구개발사업 예산 10.8억 + 기관 고유사업 예산 7.8억 + 기초기술연구회 협동과제 예산 4.5억 = 총 23.1억

연구동 재건축 조속히 추진해야...

■ 현황

- L0, L1, L2, L3, L4, L5 연구동의 노후화로 건물안전진단 평가결과 D등급 판정.
 - 건물구조, 내외부 마감, 설비배관 등의 유지보수가 한계에 봉착.
 - 연구원 사기진작 및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동 환경개선이 필요
- L5 연구동은 현재 재건축 중이며 2008년 완공 예정임
- L4 연구동은 재건축 예산으로 10억 반영(총사업비 484억원)

<노후 건물현황>

구분	L4	L3	L2	L1	L0	합계
면적(m ²)	7,934	4,893	7,703	11,471	6,347	38,348
건축연도	1967	1967	1967	1972	1983	-
안전진단	D등급	D등급	D등급	D등급	B등급	-

<건축물의 안전성 평가등급>

- A~C등급 :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없음.
- D등급 : 주요 부재에 발생된 노후화 정도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태
- E등급 : 주요 부재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이 필요한 상태

■ 문제점 및 질의

- 1966년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기관으로 출범하여 세대 10대 연구기관을 지향하는 KIST의 연구동이 건축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것은 안타까운 일임.
- 현재 L4 연구동 예산으로 10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건축에 최소 3년이 소요된다고 가정해도 L0 연구동을 제외한 L1~L4까지 4개 연구동을 하나씩 재건축하는데 12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함. 그렇다고 L4 연구동을 재건축하면서 동시에 다른 2개 동의 연구동을 재건축하는 것은 임시 연구 공간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은 건축한 지 50년이 넘는 연구동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결론임.
- 원장,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KIST가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기관이라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많은 예산 소요가 발생하고 여기에다 Selling 제의 Top-down 방식의 예산제도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연구동 재건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바람?
- 원장, 연구원 부지 면적이 271,520㎡(약 8만 2,000평)으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에는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연구원 부지가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3층 이상으로 건축할 수 없어 연구공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자연경관지구 해제 또한 매우 어렵다고 생각됨.
 - 그렇다면, 연구원이 세계적인 연구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이전을 추진하는 장기플랜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대덕특구지원본부 지휘력 · 운영능력 빼그덕...

◎ 현황 및 질의

특구지원본부는 왕따?

□ 대덕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심주체인 과기부, 대덕특구지원본부, 대전시의 역할과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임. 과기부가 총감독을 하고 대전시가 안주인의 역할을 한다면, 특구지원본부는 실질적인 총대를 메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덕특구를 진두지휘할 입장에 있음.

실제로 몇 달 전 특구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도 특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주체로 대덕특구지원본부를 42.86%로 꼽았음.(과기부 21.85%, 대전시 17.65%)

□ 그러나 현재 특구지원본부는 진두지휘는커녕 과기부와 대전시 양 쪽에 끼여 지휘력과 운영능력을 의심받고 있는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현재 대덕특구 1단계 개발계획¹⁾이 진행 중인데, 과기부는 대덕특구의 비전달성에 필요한 산업용지와 연구개발 시설용지의 수요급증에 따라 용지의 조기 공급이 필요함에 따라 2단계 개발사업을 추가로 개발해 오는 2013년 마무리될 계획임.

그런데 이와 같은 중요한 현안에서 정작 특구지원본부가 빠져있음. 과기부와 대전시는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예산 범위 내에서 특구 내 도로, 상수도 및 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함.

또 대전시는 별도로 개발계획에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를 책임지는데 이러한 3자 업무협약에서 가장 당사자가 돼야 할 특구지원본부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음.

□ 대전시가 담당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의 각종 인·허가는 특별법에 의하면 본래 특구본부의 역할이라는데, 이에 대해 대전시는 특구본부의 역할을 산업단지 관리 차원의 ‘입주’만 승인하는 것으로 한정짓고 있음. 이러한 견해 차이에 대해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하고 또 이렇게 손발이 따로 노는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람.

운영 미숙 적자에 직원과 갈등까지 홍역 치루는 특구본부, 사업능력 부재?

특구지원본부가 운영하는 부설복지센터와 게스트하우스가 각각 노조 · 운영진의 갈등과 적자 운영으로 내부 홍역을 치루고 있음.

□ ‘07년 2월 23일 개원한 게스트 하우스는 올해 1억 5천만 원이 넘는 적자 상태임. 특구 측은 적자의 원인으로 일반 호텔에 비해 20~50% 저렴한 이용요금에 따른 수익저감을 꼽고 있음.

그러나 초기 2월의 운영률²⁾이 26.9%였을 뿐 다음달에는 62.9%였다가 그 이후로 계속 80%를 넘는 객실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사업 초기연도임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수치임. 그런데도 영업관리 3명의 인건비를 복지센터에서, 시설관리비(전기, 통신, 냉난방 등)를 특구지원본부에서 대납하고 있음.

운영률이 80%로 비교적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객실 운영률이 100%가 된들 나아지겠는가?

□ 게다가 복지센터는 7월 1일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센터 핵심인력인 보육원, 스포츠센터, 체육공원 등의 인력을 프리랜서로 외주화하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발표해 갈등을 겪음.³⁾ 이에 따라 기존노조와 달리 새 방침에 반대하는 전민동 스포츠센터 직원을 포함 19인이 ‘공공연구노조 복지센터분회’ 라는 또 하나의 노조를 발족해 센터측에 강력히 저항함. 센터 안에 2개의 노조가 생긴 것.

센터와의 교섭이 합의되지 못해 7월 말에는 제 2노조에 대해 전원 해고통보가 내려지고, 전민스포츠센터 강사들이 8월 14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갈등은 더욱 증폭됨.

2) <별첨 2> 참고

3) <별첨 3> 참고

현재 8월 17일 양측이 각각 해고예고 철회와 파업철회를 결정하면서 일단락되기는 했으나 아직 전혀 해결된 것이 없어 10월 말에 추가 교섭이 진행 중임.

□ 이와 같이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결국 악화돼 가는 수익 구조 때문이라고 여겨짐. 그러나 스스로의 경영구조에 대한 반성이나 다른 시도 없이 가장 휘두르기 쉬운 인력문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은 결국 한 집단을 이끌어 나갈만한 사업능력의 부재가 아닌가 하는데 이해 대한 견해를 바랍.

또한 복지센터 소장은 기존의 운영방안을 바꾸려는 노력을 시도하기는 했는지 답변 바랍.

특구기업 해외 전문전시회 참가 마케팅 지원 부실

□ 특구지원본부는 해외에서 기업 기술의 마케팅 및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열리는 해외전문전시회의 특구 기업 참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전체 750여개 중 매회 8개 기업 정도임. 4)

특구의 유망기술을 전시하고 실질적 계약 성립 및 해외시장 진출의 성과를 점차 올리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기업의 참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같이 참가율이 저조한 이유는?

게다가 특구본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전시회의 부스설치 뿐, 항공료와 체재비는 모두 참가하는 기업 부담임. 해외전문전시회에 참가한다고 해서 곧바로 현지 진출이나 계약 체결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입장으로선 거의 자비로 참가해야 하는 것이 돈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음.

특구 내에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대기업처럼 자체 마케팅을 충분히 소화시킬 자금여력이 부족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조차 홍보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구 내 기업 기술력의 대외홍보는 곧 대덕특구의 기술경쟁력을 세계에 알리는 것인 만큼 마케팅 예산을 늘리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별첨 1>

대덕특구 1,2단계 동시개발 진행상황

□ 추진배경

- 대덕특구는 혁신클러스터를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
- 대덕특구의 비전달성에 필요한 산업용지와 연구개발시설용지의 수요급증에 따른 용지의 조기공급 필요

□ 1단계 개발계획 추진현황

- 사업규모 : 죽동, 신성, 방현 등 3개 지구 1,469천㎡

구 분	면적(천㎡)	기 능
죽동지구	915	연구개발 산업단지
신성지구	273	벤처집적 산업단지
방현지구	281	남부거점 복합단지
계	1,469	

(단위 : 천㎡)

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원용지	교육연구 사업회용지	산업용지	공공용지
1,469	240	110	356	207	304	252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06.7월 개발계획 심의·확정(연구개발특구위원회)
- '06.8월 개발계획 고시
- '08.7월 실시계획 수립
- '09.1월 토지 공급(분양)
- '12.6월 사업 준공

※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공사착수를 위한 실시계획 조사 설계 진행중

□ 2단계 개발계획

○ 추진방향

- 개발계획은 대전시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2020년 대전권광역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 대전시 도시계획상 개발 가능한 전체지역 대상
 - ※ 보전대상지역과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제외
-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실수요자에 의한 개발 병행 추진

○ 사업규모 : 신동, 둔곡, 용산, 전민, 문지 등 5개 지구 4,218천㎡

구 분	면적(천㎡)	비 고
신동지구	1,866	일반조정가능지역
둔곡지구	1,511	일반조정가능지역
용산지구	351	일반조정가능지역
전민지구	187	국가정책사업지구
문지지구	303	자연녹지지역
계	4,218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07.3~6월 과기부, 대전시, 토지공사 등 유관기관 간 5차에 걸쳐 추진 방안 협의
- '07. 8월 개발계획 조사용역(토지공사)
- '08. 6월 개발계획 수립·고시(과기부)
- '09. 6월 실시계획 승인(대전시)
- '09.12월 토지 공급(분양)
- '13.12월 사업 준공

<별첨 2>

특구 게스트하우스 운영률 및 적자 운영현황과 원인

□ 게스트하우스 운영률(월별 객실이용)

(단위/실)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장기투숙	13	40	44	55	56	56	56	55	375
일일투숙	8.3	9.7	6.8	8.8	9.9	11.6	8.4	9.7	73.2
계	21.3	49.7	50.8	63.8	65.9	67.6	64.4	64.7	438.2
운 영 륜	26.9%	62.9%	64.3%	80.7%	83.4%	86.6%	82.5%	82.9%	71.2%

※ 2007. 2. 23일 개원

□ 적자 운영현황과 원인

○ 연간운영수지('07년 예상: 1년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비 고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객실판매	367,362	인 건 비	150,000	
		사 업 비	310,000	
		경상운영비	66,000	
계	367,362	계	526,000	▲158,638

※ 1) 일일이용 대비 월 이용률을 30% : 70%로 산정

2) 객실판매율을 50%이상 최대치로 산정(타 호텔 운영사례 기준)

3) 운영에 소요되는 지출비용은 최소치로 산정

○ 적자원인

- 연구원 복지시설로서의 저렴한 이용요금에 따른 수익저감
- 일반인 이용 불가하고 호텔에 비해 20~50% 이상 저렴한 요금
- 24시간운영체제로 일반호텔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예약, 프런트, 객실관리 3, 룸메이드 4, 야간관리 2명 등 9명

<별첨 3>

특구복지센터 내 노조갈등 상황의 원인과 진행상황 및 사후조치 현황

1. 해고통보 원인

- 복지센터에서 ‘경영합리화 방안’ 시행(6월 4일 확정)
 - 경영합리화 방안 중 일용직 운영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스포츠센터 강사들 중 일부가 거부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함
- 일용직 운영제도 개선이란
 - 단순일용직(일용인부, 아르바이트 등)은 용역직으로 전환
 - 전문강사(수영, 헬스 등)는 프리랜서제로 전환하는 것임
- 단순일용직의 용역직화는
 - 6월에 합의를 완료하여 7월 1일부터 전원 용역직으로 전환
- 전문강사직의 프리랜서제 전환은
 - 도룡동 스포츠센터 : 강사 전원 7월에 합의 완료하여 8월 1일 시행
 - 전민동 스포츠센터 : 강사 16명이 직접고용 요구

2. 진행상황 및 조치사항

- 이러한 일용직원 운영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전민동 스포츠센터 강사 16명이 기관방침을 거부함에 따라 합의를 하지 못함
 - 당초 기관에서는 7월 1일부터 운영제도 개선방안 시행계획이었음.
 - 그러나 노사합의를 위해 7월말까지 교섭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이에 기관에서는 16명에 대하여 7. 31일 해고 예고통보(8.31일자)
- 이에 전민스포츠센터 강사들이 8. 14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8. 17일 노사합의로 기관은 해고예고 철회, 강사들은 파업 철회를 결정하고 10. 31일까지 추가 교섭을 진행키로 함
- 현재 8차까지 교섭을 진행중이며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10월말까지 교섭완료 예정임

<별첨 4>

**대덕특구에 대한 대외홍보 현황 및
개별 기업·연구소 마케팅 지원 예산 실적**

□ 기업·연구소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 및 실적

○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 예산 : 600백만원
- 지원내용
 - 유망상품 해외마케팅 지원 : 기업별 해외마케팅 지원
 - KOTRA와 MOU를 통해 사업 수행
 - 기업별 지원내역 : 27,000천원(기업별 7,000천원 개별부담)

단계	사업내용	지원내역
시장조사 및 진출방안수립	해외시장조사 및 제품분석	제품시장동향, 신청기업 상품 경쟁력 분석
	진출전략 및 방안수립	바이어발굴, 진출전략수립 및 로드맵작성, 최적마케팅수단 도출
마케팅	맞춤형 프리미엄 마케팅	해외전문전시회, 상품홍보로드쇼(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세일즈출장 등
사후관리	바이어 사후관리	지사화사업, 사이버 상담 사업별 A/S활용

□ 해외 전문전시회 참가 지원 : 연구소, 기업 참가 지원 및 특구 기술 소개

- 부스임차비, 통역료, 장치비 등 지원(항공료, 체재비 개별 부담)

전시회 명	기 간	참여기업수
동경 한국우수상품전시상담회	'06.4.11 ~ 12	5개기업
북경 하이테크 엑스포 및 기술설명회	'06.5.23 ~ 27	8개 기업 3개 연구소
이태리 정보통신·전자 박람회	'06.10.4 ~ 7	9개 기업 1개 대학
중국 심천 하이테크 엑스포 및 기술설명회	'06.10.12 ~ 17	8개 기업 1개 연구소
중국 무한 광전자 전시회	'06.11.1 ~ 5	8개 기업
일본 인터롭 박람회	'07.6.13 ~ 15	9개 기업

※ 대덕특구관을 설치 운영하여 특구 홍보 및 기술설명회 개최